

“인구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47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고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우리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이제는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인구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이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 사회의 위기, 청년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2023년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2명 중 우수 연구자 3명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 감소로 사회보험 제도 · 가족친화정책 변화 필요

심포지엄에서는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가 ‘대도시 1인 가구와 지역공동체 사례 탐색’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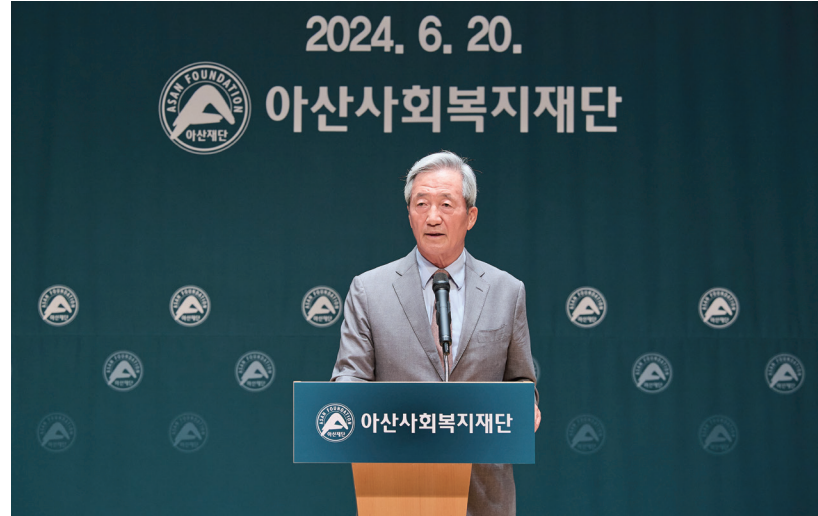
발표했으며, 이어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질 사회보험 재정 확보 문제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제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보험 운용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사회보험 재정은 사회보험료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조세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사회보험의 재원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만성 질환 유병률이 증가했고, 가족구성원 특히 직장인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 지원에 집중된 복지정책을 확대해 고령 가족 돌봄이 포함된 포괄적 복지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변화된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각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지역사회의 가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 희미해지는 오늘날 지역공동체를 통한 역할부여와 소속감은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 개인과 사회의 재연결을 증진시킨다”며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면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등은 다소 익숙한 주제지만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사각지대의 문제를 다뤘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설명했다.  글 편집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자들. 왼쪽부터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